

02 취재관행과 보도행태 점검을 통한 신뢰성 강화 방안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노베이션팀장



들어가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구독 요금제를 안내할 때, ‘뉴스’ 항목을 이렇게 명한다¹⁾: “기자 1,700명이 하는 고유의 보도로 세계를 이해하세요”

‘고유의 보도(original reporting)’는 해외 우수 언론사에서 흔히 강조되는 문구다. 직접 취재한 고유의 결과물이야말로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의 규율(discipline of verification)’에 있으며, 그것이 저널리즘을 소설이나 예술과 같은 다른 분야와 구분 짓는다.²⁾

국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 중에 얼마나 많은 보도가 직접적인 확인과 검증이라는 규율이 결여됐는지 규명할 수 있다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22년 4월,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연구진은 네이버 모바일에서 구독자 300만 명 이상인 14개사를 분석했는데 기사 출처가 타 언론과 커뮤니티인 경우가 38.1%를 차지했고, 그중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경우는 분석 대상 중 6.2%에 불과했다고 한다.³⁾ 취재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사도 이럴진대, 군소 언론은 어떨까. 당장 포털을 훑어 보기만 해도 감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사의 출처가 타 언론이나 커뮤니티가 아니면 고유의 보도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직접 멘트를 듣거나 자료를 확보해 적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취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저널리즘에서의 ‘검증’은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의 원 출처를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다각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쓴 기사나 글을 단순히 베껴 쓰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일 뿐이다. 제대로 된 취재라는 본질이 결여된 데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쌓이고 있다.

출처가 부실한 기사

독자들은 뉴스를 소비할 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포스트 같은 콘텐츠와는 다른 기대를 갖는다. 더 정확하고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1) The New York Times, Choose a plan that's write for you. 2022. 8. 2. 접속. URL: <https://www.nytimes.com/subscription/view-plans>

2) Kovach, B.,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3) 김고은 (2022). 네이버 메인뉴스 10건 중 4건은 ‘취재 않고’ 쓴 기사. <기자협회보>. URL: <https://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424>

것이라는 기대다. 그것은 기사가 그저 뉴스 플랫폼에서 생산됐다는 것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내용물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장치'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기사는 정보가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그것을 기자가 직접 치열하게 조사하며 검증해 도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뉴스에서 출처는 취재원을 통해 규명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사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빠져댄다. 기사를 통해 취재원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사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문장의 '주어'가 없는 기사다. '무엇에 따르면', '누가' 어찌했다는 출처는 없고, 무어라고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술어만 있다. 알리고 전했다는 주체가 불분명해 정보가 어찌서 믿을 만한지 가늠해보려고 해도 판단의 근거가 없다. 기사는 결코 검증될 수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을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영미권에서는 매우 드물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주요 일간지 10개와 해외 언론사의 1면 기사를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국내 일간지에서 기사당 1.19개였지만,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타임스>는 모두 0건이었다.⁴⁾ 이것은 국내 언론사들이 해외 우수 언론에 비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많이 쓴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기사라는 것은 무주체 피동형 문장 없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보의 출처가 있다면 주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어는 있는데, 그것이 '익명'인 경우다. 사건사고든 정책 현안 이든 산업계 트렌드든, 국내 기사에서는 익명의 '관계자'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인터뷰 자체를 다루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기사들이 익명의 관계자로 채워지고 있다. 관계자의 종류도 무수히 다양하다. '청와대 관계자', '경찰 관계자'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관계자', '재계 관계자'와 같이 도무지 범위와 실체를 알 수 없는 관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한다.

'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전적으로는 그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수 있으므로, 무주체 피동형 문장만큼이나 실체가 불분명하다. 범위가 불분명해 아무나 될 수 있고, 구체성이 없어 누구도 특정될 수 없다. 취재원 입장에서는 익명의 그늘 하에 숨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보를 흘릴 수 있고, 설령 정보가 부정확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기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멘트를 고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쉽게 취재보도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결정권, 정보의 근접성 등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정책에 대해서라면 말단 공무원과 국·실장의 발언이 같은 무게를 지닐 수 없고, 기업 정보에 대해서라면 신입사원과 경영진의 발언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 게다가 출처는 때때로 취재원의 '동기'를 드러내고,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사를 비판하는 '재계 관계자'가 경쟁사인 B사의 직원이라면 어떻게 읽히는가? 독자는 기사 내용을 또 다른 맥락을 갖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기사에서 익명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실명으로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자와 같이 민감한 상황에 처한 경우다. 하지만 영미권 언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익명으로 뭉뚱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정 익명으로 표기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맥락을 설명하면서 취재원이 해당 사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더해 당사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취재원을 확보하고, 복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보도한다. 익명이지만 그것이 신뢰할 만하도록 부가적인 장치를 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출처가 있지만, '한 명'에 불과한 경우다.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한 명의 발언만으로 온전하게 규명되긴 쉽지 않다. 누군가가 무어라 말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이 입증된다. 이런 까닭에 저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검증의 규율'은 단순히 '사실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진실(truths about the fact)'을 찾는 것을 뜻한다.⁵⁾

4) 이나연 (2018). 좋은저널리즘연구회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 '고품질 기사' NYT는 100건 중 55건, 한국은 7건. <신문과방송>.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5) American Press Institute. What makes journalism different than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2022. 8. 2. 접속. URL: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journalism-essentials/what-is-journalism/makes-journalism-different-forms-communication/>



때로는 같은 사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러 취재원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스트들이 추구하는 공정성이자 균형감이다. 그러지 않으면 기자는 객관적인 제삼자가 아닌, 누군가의 대변자가 된 듯한 기사를 생산하게 된다.

출처가 부실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취재도 부실하게 한다. 명확한 정보와 책임이 불분명한 취재원도 익명의 그늘 하에 용인하고, 세 명이 아닌 한 명의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쓰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취재는 편하고 쉽다. 취재원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개하도록 설득할 필요도 없고, 여럿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다. 그렇게 편한 취재에 길들여진 기자가 늘어날수록 신뢰할 수 없는 기사가 많이 생산된다.

부실 기사의 근원

출처가 부실한 기사는 왜 양산되는가? 누군가는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취재가 업의 근간이자 핵심적인 우선순위여야 할 기자가 취재할 시간이 없어서 부실한 결과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건축가가 설계할 시간이 없어서 부실한 설계도를 내놓고, 수술 집도자가 수술할 시간이 없어서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 납득하겠는가? 모든 직업인은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보를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시간이 일정부분 소요된다. 추가적인 취재원을 찾고, 취재원을 설득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은 '추가적인 취재원을 찾고, 출처 표기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업무에서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인지하더라도 기획기사와 같이 특수한 여건에 처하면 실천할 '옵션' 정도로 생각한다. 주어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를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이유다.

출처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담았다면 본질적으로는 뉴스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출처가 없는 뉴스는 발간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출처가 명확해야 기사로서의 전제가 성립한다. 그런 와중에 부실한 출처가 양산되는 이유가 있다.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무주체 피동형'이나 '관계자'를 내세운 문장, 한 명의 말만 듣고 쓴 기사는 무수히 접하거나 용납된다.

해외에서 출처와 맥락이 두드러지고 다각적으로 검증된 기사가 발간되는 것은 기자들이 특별히 윤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취재원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업무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적용한다. 기자들은 익명 보도를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에디터의 평가와 승인을 통해 그것을 발간할 수 있다. 대체로 내부 고발자, 범죄 피해자,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주장이 아닌 사실을 다루는 기사의 경우에만 검증을 전제해 익명이 용인된다. 이때 에디터의 게이트키퍼가 두드러진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⁶⁾

“에디터들은 기자와 함께 익명 사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사에 사용된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취재원들은 에디터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기자는 해당 정보가 발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발간되는 모든 것에 대한 출처는 최소한

⁶⁾ The Washington Post, Policies and Standards, 2022, 7, 30, 접속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cies-and-standards/>

한 명의 에디터에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는 기사에서 언급되는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로 독립적인 두 명의 취재원을 선호한다.”

물론 국내 언론계에도 이와 유사한 윤리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발간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에디터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갖고 적용해야 빛을 발한다. 미국에서 ‘에디터나 정책 핑계를 대는 것’은 취재원을 설득하는 주요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데스크들은 가이드라인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명기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사를 용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스스로도 기자로서 기존 관행대로 기사를 발간해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저울

이쯤 되면 ‘원인의 원인’이 궁금해진다. 독자의 신뢰를 조성하는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단순히 기자들과 에디터들이 바빠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챙긴다. 불편한 진실은 많은 뉴스룸에 기사의 퀄리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룸의 기자와 에디터들은 무엇을 신경 쓰는가? 기사의 성과에 있어서 무엇을 높이려고 노력하는지 더듬어보면 떠오르는 것은 ‘데이터’다. 얼마만큼의 독자들이 기사를 조회했는지에 대한 페이지뷰(PV)를 적지 않게 고려한다. PV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기자조차 PV가 높게 나오면 뿌듯해한다.

어떤 기사의 PV가 높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저널리즘의 질과는 무관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기자협회보가 2021년 네이버 콘텐츠 제휴 입점사의 모바일 편집판 내 ‘랭킹’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PV 상위권 50위 내 기사 대다수는 연예인·셀럽 관련 사건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발 논란, 선정적이거나 성적인 코드가 담긴 뉴스인 것으로 분석됐다.⁷⁾

인간은 이성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퀄리티 저널리즘을 원한다고 말해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클릭해서 읽게 되는 게 사람 심

리다.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의 ‘의식적인’ 이성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더 많이 반영한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면밀해져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PV가 아닌 체류시간이나 스크롤 깊이와 같은 ‘질적인 지표’가 언론계에서 중시되고 있지만, ‘질적인 지표’가 ‘기사의 질’을 오롯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 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쓴 기사나 가십거리, 선정적인 기사도 길게 스크롤되고 오랜 체류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소비된다. ‘구독 수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이버에서 기자 구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속보’다. 속보를 많이 쓰는 기자는 구독자 수도 많은 경우가 많다. 속보라고 해서 기사의 품질이 낮다고 할 순 없지만, 효율과 품질이 양립하기 어려움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생태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그것이 조성하는 뉴스룸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취재하지 않거나 알파하게 취재해서 쓴 기사도 데이터상으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기자들은 숫자의 달콤함에 길들여진다. 높은 PV를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좋은 기사를 썼거나, 최소한 기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정이 고되고 어렵더라도 더 촘촘하게 취재할 유인은 높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숫자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좌우되면 본질이 흐려지기 쉽다. 데이터 자체가 품질을 입증할 순 없기 때문이다. 숫자로 품질을 환산하려고 하는 순간 수많은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느 독자가 얼마나 어떻게 기사를 소비했는지는 알아야 하지만, 데이터는 리터러시를 갖고 해석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이라는 업의 본질과 그 근간이 되는 경쟁력이다. 정량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성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기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에 대한 ‘정성적인 기준’은 어떠한가? 기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취재가 부실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자나 데스크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기사가 발간할 만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썼을 것이고, 데스크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승인했을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높은 기준을 갖고 제동을 걸었다면 신뢰받지 못할 부실한 기사는 발간될 수 없다.

기사에 대한 기준이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수준의 엄격함을 갖고 치열하게 탐구해 발간한 기사를 일상적으로 생산해본 적도 없고, 요구받아

⁷⁾ 최승영 (2022).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 대부분 ‘저질·연성화’ 뉴스. <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067>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명품만 봐온 사람은 가품을 봤을 때 부실함과 엉성함을 곧장 감지한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기사만 봐왔거나 발간해왔다면 부실한 기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거부감이 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사는 어떻게 평가받고 가늠돼야 하는가?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는 단독 기사나 인상 깊은 기획 시리즈가 박수를 받았다. 신문사의 경우 1면에 게재된 기사가 상징성 있게 인식되기도 했다. 편집회의를 거쳐 1면으로 채택된 것 자체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아 게이트키퍼를 통과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특종을 발굴하고', '뜻깊은 기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1면에 실렸다는 것만으로 품질의 디테일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수많은 특종과 훌륭한 기획 기사를 배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기사는 단순히 아젠다의 형성이나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어째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왜 가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업을 지탱하는 근간인 저널리즘은 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불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을 만하더라도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

이다.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을 검증해 기사가 믿을만 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독자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실명의, 다각적인 취재원을 통해 확보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취재 보도의 전체 사이클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독자들은 때때로 기자들이 왜 특정 사안을 취재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슨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 취재 소재를 취사선택하는지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안>에서는 왜 특정 범죄나 용의자에 대해 보도하기를 선택하는지 에디터가 이렇게 설명했다.⁸⁾

“이 결정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범죄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유망한 사람을 동반했거나, 지속적으로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진실을 단번에 규명해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독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 중 하나이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자가 정보를 잘못 취득할 수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취재원도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속성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NPR>은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 수사에 대한 기사 말미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⁹⁾

“이것은 진행 중인 기사입니다. 보도된 어떤 사실들은 추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관계당국 보고와 믿을 만한 언론과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집중할 것이며, 상황이 발전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기사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취재한 결과물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오픈 주방’을 통해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⁸⁾ Hetty, J. (2018). How the Coloradoan reports on crime. <Coloradoan>. URL: <https://www.coloradoan.com/story/news/2018/02/08/how-coloradoan-reports-crime/317804002/>

⁹⁾ Garsd, J. et al. (2022). NYPD identifies a person of interest in the Brooklyn subway shooting. <NPR>. URL: <https://www.npr.org/2022/04/12/1092286633/brooklyn-nyc-subway-station-shooting>

것이다. 미국 <LAist>는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¹⁰⁾

“카일 스트로크스(Kyle Strokes) 기사는 부켓 캐년 로드(Bouquet Canyon Road)의 리유니언 지점에서 취재한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비주얼 저널리스트 차바 산체스(Chava Sanchez)는 리유니언 센터와 목요일 밤 철야행사에서 찍은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엘리 유(Elly Yu)는 용의자의 집에서 취재했으며 가족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가로바(Robert Garrova)는 헨리 마요(Henry Mayo) 병원에 있었습니다. 프랭크 스톨츠(Frank Stoltze)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알리사 정 페리(Alyssa Jeong Perry)는 산타 클라리타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제이콥 마르폴리스(Jacob Margolis)는 센트럴파크의 철야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디지털 프로듀서인 라이언 폰세카(Ryan Fonseca), 엘리나 샷킨(Elina Shatkin), 마이크 로(Mike Roe), 브라이언 프랭크(Brian Frank)는 이 기사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 조사와 보도는 KPCC 뉴스캐스터 프로듀서들이 했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고 수정해야 했는지 표명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인다. 그것이 언론사의 과오나 실책이더라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한다. <USA투데이>는 한 기자가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기사 23개를 삭제한 적이 있는데, 기자의 실명과 삭제 맥락, 삭제된 기사 리스트를 모두 공개했다.¹¹⁾ 삭제된 기사를 클릭하면 “이 기사는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삭제됐다”는 에디터의 메모와 함께, 배경을 설명한 기사 링크가 뜬다.

언론사를 둘러싼 설명은 다각적일수록 좋다. 누가 어떻게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언론사들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보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의

10) LAist Staff (2019). Saugus High School Shooting in Santa Clarita: Teen Girl And Boy Dead, Alleged Shooter In 'Grave Condition.' <LAist>.

11) USA Today (2022). USA TODAY removed 23 stories from website, other platforms following audit of reporter's work. <USA Today>. UR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22/06/16/usa-today-audit-reporter/7647731001/>

‘그레이TV’가 소유한 방송사 <KCRG>의 뉴스 디렉터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¹²⁾

“그레이TV에 있는 누구도 KCRG-TV9가 무엇을 취재하거나 취재하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는 방송사의 재정을 감독하는 부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 개발, 유지하는 것을 돕는 기술·디지털 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다룰지 가이드하는 기업 뉴스 또는 편집 부서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사실만 보도하도록 하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정말로 사실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널리즘이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저널리스트는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취재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예술처럼 정형화할 수 없고 무한히 열려 있다. ‘선진적인 문화 형성’은 ‘범직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언론계에서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공표해왔지만, 취재보도의 관행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원칙이란 때때로 효율이나 편이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준칙이나 강령은 백화점처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지금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 일상 업무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어떤가? <뉴욕타임스>는 일부 기사의 말미에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이 있으면 링크를 방문하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¹³⁾ 링크에서는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정책과 과정을 설

12) Carros, A. (2018). KCRG-TV9: how we operate. <KCRG>. URL: <https://www.kcrg.com/content/news/KCRG-TV9-how-we-operate-478668423.html>

13) Ivory D. et al (2022). What hundreds of photos of weapons reveal about Russia's brutal war strategy.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22/06/19/world/europe/what-hundreds-of-photos-of-weapons-reveal-about-russias-brutal-war-strategy.html>



명한다.¹⁴⁾ 이를테면 ‘기자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연루되는 것을 어떻게 피하나’, ‘기사 정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 ‘총기 난사는 어떻게 다루나’, ‘익명의 취재원은 왜 사용하나’, ‘〈뉴욕타임스〉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 등과 같은 항목이다.

더 많은 취재든, 더 투명한 보도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원이 소요된다. 즉 신뢰받는 퀄리티 저널리즘은 ‘비싸다’. 자원이 한정돼 있는 뉴스룸을 통째로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작은 곳에서도 확실하게 적용하고, 확장해나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동아일보는 탁월한 콘텐츠를 뜻하는 ‘히어로콘텐츠’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는 실명의 취재원을 추구하고, 불가피하게 익명을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정보와 맥락을 설명한다. 고유의 취재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사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디 오리지널’이라는 멀티미디어 플랫폼도 운영한다.¹⁵⁾ 해당 플랫폼에서는 ‘인사이드’라

는 코너를 통해 그곳에 담긴 기사의 취재보도 과정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원칙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영감’과 ‘자극’을 주는 사례가 언론계 내에 더 많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널리 확산되고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양화를 충분히 축적해 주류가 되게 하면 악화는 악화임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조금씩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

14) The New York Times (2022). Behind the Journalism: How The Times Works.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explain/2022/new-york-times-journalism?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15) The Original. 동아일보. 2022년 8. 6. 방문. URL: <https://original.donga.com/>